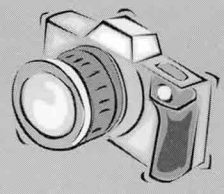
포·토·클·리·닉



나에게 맞는 디지털 카메라 고르기!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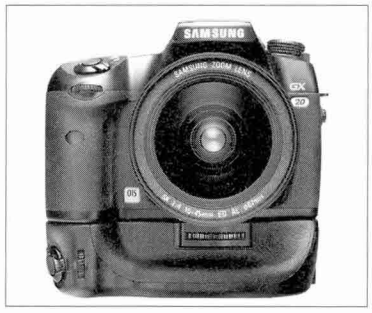
UCC 시대의 필수품 디지털카메라. 한 해에만 수십종의 신기종 디지털카메라가 출시되고 있지만 정작 내게 딱 맞는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일까? 사진을 배우기 앞서 카메라 선택이라는 1차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호는 포토 클리닉의 첫번째 시간으로써 나에게 맞는 카메라를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삼성테크윈(주) 전략마케팅팀 차장 곽중근

• 카메라의 종류

800만 화소 프리미엄 카메라 'NV-20'

800만 화소 다기능 카메라 'i8'



1400만 화소 DSLR 'GX-20'

• 화소의 선택

600만 화소의 디카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각 사들이 1,000만 화소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사실 일반인이 1,000만 화소를 활용할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매장에서는 화소가 높을수록 사진이 선명하고 잘 찍힌다고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화소가 높으면 이미지의 크기가 커질 뿐 선명하거나 더 잘 찍히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m 이상의 대형사진을 출력할 일이 없다면 카메라 구입시 600만 화소를 선택하고 비용을 절약하여 배터리, 메모리 등과 같은 부속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시중에는 카메라의 시리즈별로 600만, 700만,

1,000만 등의 화소만 다른 카메라들이 출시되고 있다.

• 렌즈의 선택

렌즈는 사진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줌렌즈 카메라는 배율이 클수록 편리하긴 하지만 실제로 망원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렌즈의 밝기가 어두워져 사진이 흔들릴 수 있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많다. 사진 초보자라면 3~5배 이내의 줌배율을 가진 카메라를 선택함이 바람직하다 .

• 액정의 크기

이제는 사진을 찍기 위해 한눈을 감고 카메라를 얼굴에 빠짝 붙이는 광경을 보기 힘들다. 실시간으로 액정을 보면서 촬영을 해야 하므로 액정의 크기, 밝기 등이 매우 중요하다 .

실제로 환한 대낮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 액정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2.5인치 TFT 방식의 명암비가 큰 밝은 액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주변 밝기에 따라 액정의 밝기가 자동 조절되는 카메라도 있다. 따라서 2.5인치 이상 20만 화소 이상인지 스펙표에서 꼭 확인하자.

• 다양한 기능

많은 기능을 가진 카메라는 가격도 비싸고 사용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기계를 다루는 데 소질이 없다면 가능한 한 카메라의 기능에 충실한 단순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낫다. 이왕 거금을 들여 구입하는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컨버젼스 제품을 원하다면 각각의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구입해야 한다. MP3 플레이어와 PMP 기능이 내장된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는 전세계 주요여행지 정보가 내장되어 여행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제품도 출시되었다.

카메라 매니아가 아니라면 굳이 수동촬영기능 등이 필요치 않다. 하지만 꼭 점검해야 할 것은 자동모드에서 간편하게 사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노출보정기능이 있는지는 꼭 확인하자.

• 손떨림방지 기능과 고감도는 기본!

최근 이미지프로세싱기술을 활용하여 실내 또는 야간촬영시 느린 셔터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떨림현상을 방지해주는 기능과 광량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빠른 셔터로 촬영할 수 있는 고감도 기능의 채용이 일반화 되어 있다. 손떨림기능과 ISO 1000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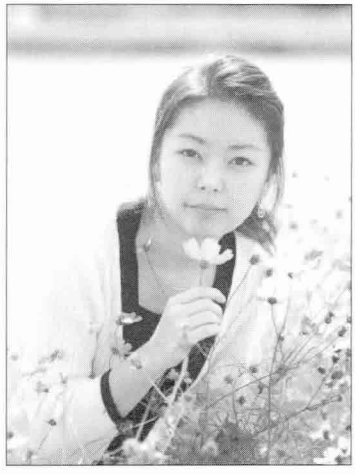
• 동영상 기능의 중요성

블로그나 싸이 홈피에도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는 굳이 동영상을 위해 캠코더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디카에 있는 동영상 기능도 우수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사용에는 충분하고 가정에서 TV를 통해 감상하는 데도 크게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동영상의 단점은 촬영후 보기 좋게 필요한 장면만 잘라서 편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촬영할때 토막토막 촬영한 비디오클립을 이어서 편집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사용법이 매우 어려워 배우는 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메이커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동영상촬영기능은 촬영도중 잠시멈춤을 하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녹화를 하는 연속멈춤기능이 있어, 긴 시간을 편집해 가면서 촬영해도 촬영후 별도의 편집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따라서 동영상을 많이 찍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자.

• 배경이 뽀샤시한 사진을 찍고 싶다면 DSLR을 고려하자



CCD크기의 차이와 렌즈특성의 차이로 콤팩트카메라에서는 옆 사진과 같이 배경이 흐릿하고 인물은 또렷한 아웃포커스 사진을 찍을 수 없다. 따라서 과감하게 DSLR 카메라로 디카인생을 시작해 보자. 이 경우 기본적인 노출, 셔터와 조리개의 특성 등의 이론공부는 각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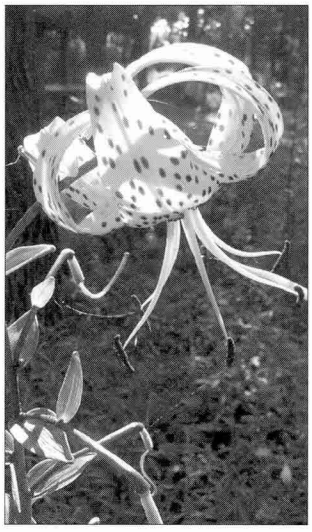
DSLR은 렌즈를 교체할 수 있으므로 최초구입시는 기본렌즈만 구입하고, 차차 익숙해 지면서 렌즈와 장비를 하나씩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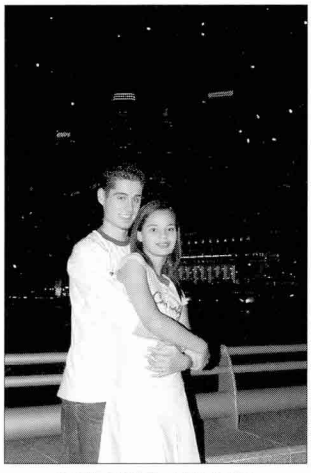
•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광선의 이해는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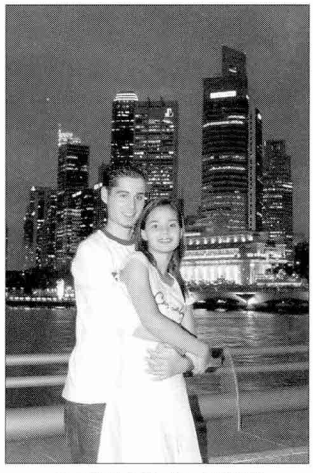
사진은 영어로 photography이다. photo(빛)+graphy(그림)의 합성어로 '빛그림' 이란 뜻이다 .

프로사진가와 일반인의 사진이 다른 점은 프로사진가들의 특별한 촬영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구분이 된다.

커머셜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 조그만 카메




자동후레쉬를 사용한 경우


슬로우셔터싱크로 후레쉬를 사용한 경우

라 하나를 촬영하는 데도 조명을 세팅하는 시간만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 만큼 사진에 있어 빛의 역할은 매우 크다 .

특별히 풍경사진이냐 인물사진이냐에 상관없이 빛의 흐름을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간단하게는 남들과 다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역발상을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태양을 먼저 확인한다. 찍히는 사람은 태양을 마주보고 촬영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광선을 정면광이라고 하고 정면광에서는 아무리 미남미녀도 절대 이쁘게 나오지 않는다.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멋있다고 감탄할 때는 우연히 역광상태의 풍경을 보고 있을 때가 많다.

앞으로는 사진을 찍을 때 역광을 활용해 보자. 빛의 아름다움이 인물과 풍경에 스며들어 또 다른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역광사진에서는 자칫 인물이 노출부족이 될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보정기능을 이용하여 노출과다쪽으로 보정을 하거나, 후레쉬강제발광기능을 이용해 대낮이라도 후레쉬를 같이 터트려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역광으로 인한 라인 라이트가 반짝이면서 인물은 어둡지 않게 촬영이 된다.

• 야간촬영의 실패를 줄이려면?

90%의 실패율을 보이는 야간촬영에 대해서 알아보자.

야간에 멋있는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배경은 검고 인물만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처럼 큰 돈 들여 간 해외여행이나 일생의 한번뿐인 신혼여행에서 한강고수부지인지,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사진이 찍혔다면 여간 낭패가 아니다.

따라서 야간촬영시에는 꼭 후레쉬모드를 슬로우싱크로 활용하자. 대부분 ^{S} 후레쉬 표시 옆에 영문 'S' 로 표시하는데 셔터속도를 야간노출에 맞게 느리게 작동하면서 후레쉬를 같이 쓴다는 표시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셔터속도가 1초 미만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레쉬가 발광된 이후에도 모델이 1초 이상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야 되며, 찍는 사람도 움직이면 안된다. 따라서 가능한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외산제품중에서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제품은 '내수품'이라고 불리며, 정품에 비해 10~20% 정도 싼가격에 거래되지만 고장시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입후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디카는 심한 고장시 때에 따라서는 제품가격의 절반 이상이 수리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외산제품이 무상보증이 1년인데 비해 국산품은 2년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면에서 이러한 점도 반드시 고려해 보자.

한편, 사진에 대한 촬영정보를 보려면 삼성테크윈에서 운영하는 'www.zoomin.co.kr' 웹진메뉴에 가면 여러 가지 촬영테크닉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이번 호부터는 삼성테크윈(주) 전략마케팅팀의 곽중근 차장의 도움으로 사진에 처음 입문하는 초보부터 프로에 이르기까지 쉽게 카메라를 다루고 사진촬영 기법을 익힐 수 있는 지면을 마련했다. 광학세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편집자 주〉